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 맑고 향기롭게

Malgo Hyanggiropge

only practical virtue  
can only make our hearts  
purified and emptied.



# 04

---

2021

《맑고 향기롭게》는  
가난한 절 길상사와  
이 땅의  
텅 빈 사람들에게  
법정 스님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 차례

1. 시절 인연  
단 한 사람의 스승
2. 법정 스님이 주시는 선물 받아 가세요  
미소 짓는 얼굴
3. 법정 스님 따라하기  
선의 정신 2
4. 법정 스님 잔소리  
사람의 일
5. 법정 스님 강추  
선재동자와 함께 떠나는 선지식 여행 4
6. 불일암 구석구석  
새 물
7. 다실에서 / 이해인 수녀의 시  
봄 인사
8. 맑고 향기롭게 사는 사람들  
중앙 대구 경남 광주
9. 가난한 절  
길상사 소식

《맑고 향기롭게》는 이렇게 만듭니다.

법정 스님이 쓰신 글, 써 두셨던 글, 하신 말씀, 쓰던 물건을 전합니다. 덕조 스님이 간직한 법정 스님의 미발표 원고를 세상에 처음 신습니다. 달마다 새 글을 올려 맑고 향기롭게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법정 스님 당부를 지켜 종이를 눈곱만큼도 버리지 않는 제본, 곧 국산 아르테160그램 용지를 11번 접어서 24절 서첩으로 제작합니다. 화학품을 쓰지 않고, 화학 약품 코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젖고 잘 찢어지고 빨리 씹습니다. 한 달 동안 세워 놓고 보고 읽고 만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임과 뜻을 함께하는 지식음만드는지식 출판사가 제작 비용을 보탬니다. 월간 《맑고 향기롭게》는 꼭 할 말만 쓰고 돈을 아끼면서 환경을 지킵니다.

2021년 4월 1일 발행, 통권 314호, 신고번호 성북라00004호, 1999년 6월 23일 등록, 발행 편집인 / 덕조, 기획 편집 디자인 / 지식음만드는지식, 발행처 / 맑고 향기롭게 모임 주소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 741 4696 팩스 02 741 4698, 인쇄 / 영신사, 맑고 향기롭게 대구 모임 053 753 8883, 경남 모임 055 266 0710, 광주 모임 062 236 3129,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clean94.or.kr> 전자우편 [clean94@hanmail.net](mailto: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도우려고 법정 스님이 세운 절입니다. 전화 02 3672 5945 팩스 02 3672 5947 홈페이지 <http://www.kilsangsa.or.kr> 전자우편 [kilsangsa@hanmail.net](mailto:kilsangsa@hanmail.net)



## 1. 시절 인연

### 단 한 사람의 스승

오늘 아침은 날씨가 화창하여 덧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방청소를 한바탕했다. 마침 라디오에서는 비발디의 <봄>이 흘러나왔다. 맑고 투명한 선율에는 비발디 나름의 은밀한 슬픔이 배어 있는 것 같다. 이 '봄'의 소리를 들었음인지 숲에서 새들이 몇 마리 날아와 태산목 가지에서 뭐라 재잘거렸다. 같은 것끼리는 서로 끌어당기는 모양이다. 생명의 원천은 하나이므로, 모두 이 우주가 별이는 생명의 잔치에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저녁 예불을 마치고 나서 차를 한 잔 마실까 하다가 그만두고,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을 들었다. 요요마의 연주. 봄밤에 첼로 소리를 듣고 있으니 내 마음 한구석에 연둣빛 밀물이 고이려고 한다. 음악은 가장 자연스러운 우주의 호흡일 거라는 생각이 든다. 이 호흡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우리들 자신도 맑고 투명해진다. 작은 우주의 호흡이 된다. 이야기를 하나 꺼내려고 한다. 이슬람교의 위대한 신비가 하산이 바야흐로 이 세상을 하직하려는 임종의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물었다.

“하산, 당신의 스승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는 말했다.

“나에게는 수천수만의 스승이 계셨다. 그분들의 이름만 늘어놓는 데도 몇 달 몇 년이 걸릴 것이다. 그러면 나는 죽을 시간을 놓쳐 버리고 만다. 하지만 단 한 사람의 스승만큼은 그대에게 분명히 말해 주고 싶다.”

하산은 목청을 가다듬고 말을 이었다.

“그 스승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도둑이었다. 어느 날 나는 여행 중이었는데, 사막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간신히 어떤 마을에 이르렀다. 시간이 이미 늦었기 때문에 가게며 집

들이 모두 문을 닫고, 거리에는 사람 그림자 하나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다가 나는 어떤 길모퉁이에서 담에 구멍을 뚫으려고 애쓰는 사람과 마주쳤다. 나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허룻밤 머물 곳을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밤늦은 시간에 어디서 머물 곳을 찾겠소? 당신이 나같은 도둑과 함께 있는 것이 괜찮다면, 우리 집에서 허룻밤 묵어도 좋소.’

그 도둑은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나는 그날 밤만이 아니라 한달 동안을 그 도둑과 함께 지냈다. 밤이 깊어지면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자, 나는 이제 일을 하러 나갑니다. 당신은 여기서 폭 쉬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그가 돌아오면 나는 이렇게 물었다.

‘무슨 소득이 있었소?’

그는 미소를 지으면서 말하곤 했다.

‘오늘 밤은 실패했소. 하지만 신의 뜻이 그렇다면 내일 밤에 나는 다시 시도해 볼 것이요.’

그는 단 한 번도 절망하거나 낙담한 적이 없었다. 언제나 그는 행복이 넘쳤다.

나는 수년 동안 명상과 사색을 계속해 왔으면서도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다. 이런 때 나는 번번이 깊은 절망에 빠져 이 모든 어리석은 짓을 그만두어 버리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그럴 때면 문득 밤마다 이와 같이 말하던 그 도둑이 생각났다.

‘신의 뜻이 정 그렇다면 아마도 내일은 뭔가 소득이 있을 것이요...’

성인聖人에 대해서 읽다가 문득 하산이 임종하는 자리에서 말한 그의 스승인 도둑 이야기가 떠올라 여기에 소개했다. 도둑이면서도 그는 깊은 신앙을 지니고 있었다. 자기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그는 신의 뜻을 생각하면서 절

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늘 다시 시도한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스승 중에서 하필이면 도둑을 유일한 스승으로 임종의 자리에서 떠올릴 만큼 그에게는 커다란 감화를 끼쳤던 모양이다. 임종의 자리까지 미룰 것도 없이, 단 한 사람의 스승을 가리키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떠올릴 것인가. 지금까지 이 풍진 세상을 살아오면서 삶의 지표가 되어준 그런 스승이 있다면, 그 인생은 결코 삭막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통상적인 관념으로 볼 때 성인이라고 하면 석가모니, 예수, 공자 또는 소크라테스 같은 인류의 정신사에 커다란 흔적을 남긴 그런 분들을 연상하기 쉽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읽는 <<수타니파타>>에서 이야기하는 성인은 그처럼 거창하고 거룩한 인격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일상적인 생활 규범 안에서 투철한 질서를 지니고 살아가는, 때 묻지 않고 어디에 매이지 않아 평안에 이른 자유인을 말한다. 거룩한 인격이기보다는 성숙한 인품을 성인으로 보고 있다.

번뇌진 집착이건 일어나는 근원을 살펴 거기에 물들거나 얽매이지 않으면 사람은 본래부터 지녔은 자신의 천성을 드러낼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밝고 신령스런 불성佛性(또는 靈性)을 지녔다 할지라도 한 생각 꼭 막혀 매이거나 갇히면 윤회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만다.

성인은 “홀로 행하며 게으르지 않다”고 했다.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남에게 떠맡기거나 의존해 버릇하면 자신이 지닌 잠재력과 가능성을 이끌어 낼 기약이 없다. 한마디로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 줄 모르는 것은 게으른 탓이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게으름이 최대의 악덕임을 명심해야 한다. 투철한 자기 삶의 질서를 지니고 사는 자주적인 인간은 남의 말에 팔리지 않는다. 누가 귀에 거슬리는 비난을 하건 달콤한 칭찬을 하건, 그건 엄밀한 의미에서 나오는 상관없이 없다. 누가 내 삶을 대신할 수 있는가. 지나가는 한때의 ‘바

람’임을 알아야 한다. 일시적인 바람에 속거나 흔들려서는 안 된다. 바람을 향해서 화내고 희희거린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 허수아비거나 인형일 것이다. 그와 같은 ‘바람’ 앞에 깨끗한 사람이야말로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남에게 이끌리지 않고 남을 이끄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동물과 사람의 다른 점은 자제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에 있다. 들뜨기 쉬운 감정만이 아니라 냉철한 이성理性을 지닌 사람이므로 자신의 분수를 알고 자제할 줄을 알아야 한다. 자제란 무엇인가. 타율에 의해 억지로 참는 일이 아니다. 자제란 자신의 질서다. 그리고 내 삶의 양식樣式이다. 자신의 질서요 삶의 양식이기 때문에 남에게 폐를 끼치거나 남을 괴롭힐 수 없으며, 또한 남한테서 괴로움을 받을 일도 없다.

법정 스님이 1980년대 말에 경전 읽기 모임을 위해 써 주신 글입니다. 저녁 예불을 마치고 차대신 마신 바흐의 첼로 소리가 연둣빛 밀물이 되어 마음에 고였다고 합니다. 이슬람 교의 위대한 신비가 하산이 평생 스승으로 삼아 기억했다는 그 도둑의 모습이 새삼 궁금해지는 봄밤입니다. 이 아름다운 시간에 당신도 우주의 호흡에 귀 기울여 보시죠.

## 2. 법정 스님이 주시는 선물 받아 가세요

4월의 선물은 미소 짓는 얼굴입니다. 스님이 1980년대 초에 써 두고 발표하지 않은 글입니다. 당신의 얼굴에 미소 선물, 듬뿍 받으시기 바랍니다.

### 미소 짓는 얼굴

사람의 얼굴은 하나의 풍경이요, 한 권의 책이다. 용모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탈 때, 우리는 얼굴을 가리거나 붉힌다.

얼굴은 가려진 내면의 세계를 드러낸다. 기쁨이 넘치는 마음을, 밝은 얼굴과 미소로써 드러낸다.

우수에 젖은 내면의 세계를 그늘진 얼굴과 쓸쓸한 눈매로 드러낸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장 소중하게 감춰 두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여러 사람 앞에 공개하고 있는 셈이다.

사람은 각자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얼굴을 가진 그런 존재다. 그러니 우리는 이 지상에서 자기의 특성을 실현하도록 초대받은 사람들이다.

사람은 자기 자리에 맞게, 분수와 특성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남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자기 자리를 버린다면 이것도 저것도 실현할 수 없다.

저마다 특색을 지닌 얼굴이기 때문에 남의 얼굴을 닮지 말고 자기 얼굴을 지녀야 한다. 자기 얼굴을 지니려면 자기 자신답게 살 수 있어야 한다.

자기 얼굴은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이 만든다. 그래서 사람의 얼굴을 가리켜 이력서라고 하는 것이다.

사람의 얼굴은 사랑으로 둘러싸이지 않을 때는 굳어진다. 그건 진짜 얼굴이 아니다. 얼굴의 단순한 소재에 불과하다. 맑은 영혼이 빠져나가 버린 빈 껍질이다. 맑은 영혼이 깃들지 않은 미모는 반짝이는 유리로 해 박은 의안과 같아서 아

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어떻게 내 얼굴을 만들까?

요즘 화장법은 백화점에서 그려 준 얼굴을 만든다. 내 얼굴이 아닌 남의 얼굴, 곧 가짜 얼굴이다. 요즘의 화장법은 감출수록 오히려 드러난다는 예술의 비법을 모르는 듯하다. 과장과 남용의 결과 본래의 아름다움은 어디로 가고 추한 껍질만 드러나게 됐다. 아름다워지려면 화장대 앞에 앉으려고만 하지 말고, 요가 학원 다니면서 살만 빼려고 하지 말고,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굶으려고 하지만 말고 먼저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할 것이다.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려면 맑은 생활 습관을 익혀야 한다. 불제자에게는 공통적인 계와 율이 있다. 오계와 율장이 생활 규범이고 질서다. <<법구경>>은 말한다.

온화한 마음으로 성냄을 이기라.

착한 일로 악을 이기라.

베푸는 일로써 인색함을 이기라.

진실로써 거짓을 이기라

우리는 언젠가 죽어야 할 존재다. 인간의 한계 상황인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흩어진다. 너그럽게 풀어야 한다. 미소 짓는 얼굴은 우리를 활짝 열리게 해 준다. 어느 날 우연히 마주친 미소 짓는 얼굴을 통해 우리의 사주팔자가 바뀔 수도 있다. 온화한 마음으로 성냄을 이겨 내고 착한 일로 악을 이겨 내고 베푸는 일로 인색함을 이겨 내고 진실로써 거짓을 이겨 내면 영혼은 아름다워지고 아름다운 영혼은 미소 짓는 얼굴을 만든다. 그리고 보면 얼굴은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운명인 셈이다. 이제 방법을 알았으니 우리 모두 미소 짓는 얼굴로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보자.

### 3. 법정 스님 따라하기

#### 선의 정신 II

임제 선사의 말씀.

“그대들은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다. ‘도를 닦아 진리를 깨닫는다’고, 도대체 어떤 진리를 깨닫고 어떤 도를 닦는다고 하는가? 그대들의 지금 행동에 무엇이 모자라 다시 보수를, 수행을 하겠다는 말인가?”

말에 팔리지 말고 말 뒤에 숨은 뜻에 착안할 것. 임제 선사의 출발점은 본래청정本來淸靜, 이것은 사람이 본래 온전한 존재임을 전제하는 것이다. ‘본래’라는 말은 소급된 시간이 아니라 지금 당장을 말한다.

본래면목本來面目은 현전면목現前面目이다.

“그대들 한 사람의 장부丈夫는 본래무사本來無事임을 알아야 한다. 스스로 믿지 않았을 뿐이다. 그래서 항상 자신의 얼굴을 잊어버리고, 허둥지둥 남의 얼굴만을 찾아 헤맨다. 선종禪宗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 바로 지금이지 다른 때가 있는 것이 아니다.

즉시현금 갱무시절卽時現今 更無時節”

무사자시귀인無事者是貴人, 일이 없으면 그것이 곧 귀인이다. 그러나 일이 없다는 것이 빈둥거린다는 말이 아니다.

“그대가 바른 견해-진정견해真正見解, 곧 걸림 없는 청정한 지혜를 얻고 싶거든 타인으로부터 미혹을 입지 말라. 안으로나 밖으로나 만나는 것은 바로 죽이라.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아라한을 만나면 아라한을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이고, 친척이나 권속을 만나면 친척이나 권속을 죽이라. 그래야만 그 어떤 것에도 구애를 받지 않고 자유자재하리라.”

이래서 선의 세계에서는 평상심平常心을 귀하게 여긴다. 평상심이 바로 도다.

신보다는 사람을, 신기한 것보다는 평범한 일상을, 성인聖人보다는 무사인無事人을 귀하게 여긴다. 이것이 무사인, 곧 일 없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한가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까닭이다.

부처나 조사, 전통이나 스승을 최고 가치로 삼게 되면 그것은 스스로를 얽매는 것이다. 임제는 그것을 단호히 거부한다. 이때 거부한다는 것은 극복한다는 뜻이다. 그것들은 모두 인혹人惑이기 때문이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그것들은 새로운 가치 창조를 방해한다. 진정한 종교인은 종교 그 자체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그래야 개인의 창조력이 살아난다. 선은 이와 같이 창조를 존중하면서 모방을 배격한다. 서산대사와 사명대사의 만남을 기억하라. 그들은 첫 만남에서 새를 잡고 물고기를 먹고 비늘을 삼켰다. 언어가 존재를 얽어매지 못한 것이다. 임제 선사가 주장한 무위진인無位真人이란 범부도, 성인도, 중생도, 부처도 소용없는 절대 자유의 주체를 말한 것이다. 곧 자주적인 인간이다. 이런 의미에서 임제, 그는 가장 종교적인 인간이다.

“부처로써 구의究竟, 곧 최고 가치를 삼지 말라. 내가 보기에는 부처도 한낱 화장실 변기와 같고, 보살과 나한은 목에 씌우는 형틀이요, 손발에 채우는 자물쇠, 이 모두 사람을 결박하는 물건이니라.”

〈5월 호에 이어집니다.〉

## 4. 법정 스님 잔소리

요즘 우리 사는 모습을 보는 법정 스님 심사가 편치 못한 듯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에 대한 잔소리는 4월 호에 다 실을 수 없어 5월 호에 나눠 실었습니다. 1981년 9월 29일에 강원도 춘천 성심여대 강의 내용을 이번에 정리했습니다.

### 사람의 일 I

1.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것은 우주의 질서다. 불교에 서는 이것을 제행무상이라고 한다.

변한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가능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문제는 어떻게 변하느냐에 달린 것이다.

오늘처럼 사람의 가치가 하락한 적이 있었을까?

인간의 위기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람답게 변해야, 변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자기 변혁의 과정을 통해 거듭거듭 재구성되어야 한다.

2.

사람이 사람답게 변모하려면, 곧 사람답게 살 수 있으려면 첫째는 자기 존재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한다. 자기 존재를 자각하려면 고독의 의미, 고립이 아니라 고독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특성과 재능을 지니고 있다. 그걸 일깨우려면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응시가 필요하다. 현대인들은 고독한 체는 하면서도 진정한 고독을 모른다. 많은 대중가요의 가사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고독을 오해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고독은 흔히 말하듯이 보랏빛 노을이 아니다. 당당한 인간 실존의 현상이다.

우리의 일상을 보자. 서로 닮으려고만 한다. 주택 단지의 집들처럼, 아파트 단지의 창문처럼 똑같아지려고만 한다.

그도 그럴 것이 똑같은 대중매체에 세뇌를 당하고, 슈퍼마켓에서 비슷한 그릇과 식품을 만나고 비슷한 가구로 집을 꾸미고 자신의 개성과는 다른 거주 공간에서 똑같이 살기 때문이다. 고속버스 휴게소를 보라. 어찌면 그렇게 똑같은가? 이런 일들로 해서 개성과 특성의 틀이 시들어 간다. 현대인들은 자기 언어가 없다. 자기 사유가 없기 때문이다. 남이 뱉어 버린 말을 열심히 주워서 쓴다. 골 빈 속물이 되어 간다.

진정한 고독은 우리들 영혼 한가운데 열려 있는 심연深淵, 곧 깊은 못 같은 것이다. 그것은 보랏빛 노을이 아니라 당당한 실존이요, 본래적인 자기 모습이다. 이런 고독을 체험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범속한 일상성에 저항할 줄 알아야 한다. 오기가 있어야 하고 불의 앞에서 항거할 줄 알아야 한다.

둘째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는 너무 많이 의존한다. 침묵의 바다에 들어가 봐야 발가벗은 자신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시간을 경험하면서 사람은 좀 외롭긴 하지만 사람답게 변모될 수 있다.

3.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나누어 가질 줄 알아야 한다. 나눔은 자기확산 같은 것이다.

우리가 고독을 체험하는 것은, 자기로부터 시작하기 위해서이지 거기 머무르기 위해서는 아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구조는 세상에 있음 In der Welt sein이다. 세상에 있다는 것은 함께 있음 mit sein을 뜻한다.

우리는 수많은 이웃들과 함께 살지 않을 수 없도록 태어났다. 우리는 관계의 이웃이다.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다.

<5월 호에 이어집니다.>

## 5. 법정 스님 강추, 선재동자와 함께 떠나는 선지식 여행 IV

### 해문국에서 해운 비구를 만나다 I

승락국 묘봉산에서 덕운 비구와 헤어진 선재동자는 해문국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한다.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을 것인가? 그의 마음속엔 오직 이 생각뿐이었다. 선재와 함께 여행을 하는 우리는 지극한 마음으로 가르침을 생각하고 정념正念으로 지혜 광명의 문을 관찰했다. 정념으로 보살의 해탈문을 관찰하고, 보살의 삼매문을 관찰하고, 보살의 큰 바다의 문을 관찰하고, 부처님이 앞에 나타나는 문을 관찰하고, 부처님의 처소의 문을 관찰하고, 부처님의 법칙의 문을 관찰하고, 부처님의 허공계와 같은 문을 관찰하고, 부처님이 출현하시는 차레문을 관찰하고, 부처님이 들어가는는 방편문을 관찰하면서 남쪽으로, 남쪽으로 가다 보니 어느새 해문국이였다. 해운 비구의 처소는 찾기 쉬웠다. 선재동자가 먼저 나아가 그의 발앞에 엎드려 절한 후 합장하고 서서 말했다.

"저는 이미 위없는 보리심을 발해 위없는 지혜 바다에 들고 자하오나, 보살이 어떻게 세속의 집을 버리고 여래의 집에 나는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생사의 바다를 건너 부처님의 지혜 바다에 들어가며, 범부의 자리를 떠나 여래의 자리에 들어가며, 생사의 흐름을 끊고 보살행의 흐름에 들어가며, 생사의 굴레를 깨뜨리고 보살의 서원 바퀴를 이롭니까? 또 어떻게 해야 악마의 경계를 없애고 부처님의 경계를 나타내며, 애욕의 바다를 말리고 큰 자비의 바다를 채우며, 모든 어려움과 나쁜 길의 문을 닫아버리고 큰 열반의 문을 열게 하며, 삼계三界的 성에서 나와 온갖 지혜의 성에 들어가며, 온갖 노리개를 버리고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을 들은 해운 비구가 선재에게 묻는다.

“그대가 위없는 보리심을 발했는가?”

선재가 답한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미 위없는 보리심을 발했습니다.”

해운 비구가 말한다.

"중생이 선근善根을 심지 않으면 위없는 보리심을 낼 수 없으니 보문普門, 곧 관세음보살의 교화 방편의 선근 광명을 얻어야 한다.

또 진실도인 삼매의 광명을 갖추어야 하고,

여러 광대한 복바다를 내야 하고,

희고 깨끗한 법을 자라게 하는 데 게으름이 없어야 하고,

선지식을 섬기는 일에 고달픈 생각을 내서는 안 되고,

몸과 목숨을 돌보지 말고 쌓아두는 일이 없어야 한다.

평등한 마음이 대지와 같아서 높고 낮음이 없어야 하고,

항상 모든 중생을 사랑하고 가엾이 여겨야 하고,

생멸의 길을 생각하며 잊지 말아야 하고,

항상 여래의 경계 관찰하기를 좋아해야 그와 같은 보리심을 발할 수 있다.

보리심을 발한다는 것은 대비심大悲心を 발하는 것이니, 모든 중생을 널리 구제하기 때문이다.

크게 인자한 마음을 내어 모든 세상을 다 같이 복되게 해야 하며,

안락한 마음을 내어 중생의 괴로움을 없애주어야 하며,

이롭게 하는 마음을 내어 중생이 나쁜 법에서 떠나게 해야 하며,

슬피 여기는 마음을 내어 두려워하는 이들을 다 수호해야 한다.

결림 없는 마음을 내어 온갖 장애를 여의게 해야 하며,

광대한 마음을 내어 법계에 가득 차게 해야 하며,

끝없는 마음을 내어 허공계처럼 가지 않는 데가 없어야 하며,

너그러운 마음을 내어 모든 여래를 다 친견해야 하며, 청정심을 내어 과거·현재·미래 삼세의 법에 지혜가 어김이 없어야 하며, 지혜의 마음을 내어 온갖 지혜 바다에 두루 들어가야 한다.

내가 이 해문국에 머문 지가 12년인데 항상 큰 바다로 생각의 대상을 삼아왔다. 이른바 큰 바다가 광대무변함을 생각하고, 큰 바다가 심히 깊어 헤아리기 어려움을 생각하고, 큰 바다가 점점 깊고 넓어짐을 생각하고, 큰 바다에 한량없는 보물들이 기묘하게 장엄함을 생각하고, 큰 바다에 한량없는 물이 고여 있음을 생각한다. 큰 바다의 물빛이 같지 않아 헤아릴 수 없음을 생각하고, 큰 바다는 한량없는 중생들이 사는 곳을 생각하고, 큰 바다는 온갖 몸이 큰 중생을 수용함을 생각하고, 큰 바다는 구름에서 내리는 비를 모두 받아들임을 생각하고, 큰 바다는 불지도 않고 줄지도 않음을 생각했다.

나는 또 이 세상에 이 바다보다 더 넓고 더 끝없고 더 깊고 더 특수한 것이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

내가 이와 같이 생각할 때 이 바다 밑에서 홀연히 큰 연꽃이 솟아나왔다. 그 연꽃은 더할 수 없는 다라니 보배로 줄기가 되고, 폐유리 보배로 연밥이 되고, 염부단금으로 잎이 되고, 침수향으로 꽃받침이 되고, 마노로 꽃술이 되어 아름답게 큰 바다를 가득 덮었다.

이와 같은 큰 연꽃은 여래가 세상에 나오시는 선근으로 피어났으므로, 모든 보살들이 다 같이 믿고 좋아했다. 그때 여래께서 연꽃 위에 가부좌하고 앉으셨는데, 그 몸은 유정천有頂天에까지 이르렀다."

<해운 비구가 여래로부터 보안 법문을 받아 1200년 동안 중생에게 열어 보이고 편히 머물게 한 이야기는 5월 호에 이어집니다.>

## 6. 불일암 구석구석



사진 덕조

### 새 물

뒤집어 놓은 오지향아리 뚜껑입니다. 맑은 물이 담겼습니다. 듽직한 참나무 동치 위에서 고요하게, 무언가를 기다립니다. 1982년의 어느 날, 법정스님은 이곳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요즘 산에서 아침 다섯 시 무렵이면 한바탕 큰 잔치가 벌어진다. 꾀꼬리, 삵꾸기, 소쩍새, 방울새, 밀화부리 등 온갖 새들이 저마다 생명의 환희를 노래하면서 새날의 시작을 기리고 있다. 그들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넘치는 기쁨을 같은 숲속에서

는 이웃끼리 서로 주고받으려는 것이다.”

참나무 동치 위 뒤집힌 향아리 뚜껑에 담긴 물은, 그렇습니다, 자연의 성악가, 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들은 날아와 마시기도 하고 몸을 씻기도 하고 얼굴을 비춰 보기도 합니다. 덕조스님은 이것을 “새 물”이라고 부릅니다. 새를 위한 물, 새 물은 매일 새로 갈아 줍니다. 날마다 새로운 새들의 노래처럼, 새 물은 언제나 오늘이 물입니다.

## 7. 다실에서 / 이해인 수녀의 시

### 봄 인사

새소리 들으며  
새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봄 인사드립니다

계절의 겨울  
마음의 겨울  
겨울을 견디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까치가 나무 꼭대기에  
집 짓는 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높이 올라가자

절망으로 내려가고 싶을 때  
우울하고 가라앉고 싶을 때

모든 이를 골고루 비추어 주는  
봄 햇살에 언 마음을 녹이며  
당신께 인사를 전합니다  
햇살이야말로  
사랑의 인사입니다

## 8. 맑고 향기롭게 사는 사람들

### 중앙 모임 소식 (02-741-4696)

#### 2021년 '맑고 향기롭게 · 대학 장학생' 공모 안내

시민 모임 '맑고 향기롭게'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라 장학금 지원 대상자를 지난해부터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바꾸어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정한 마음과 탁월한 역량을 가진 불교 인재를 본 회의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자신이 가진 역량을 더욱 크게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 선발 인원 : 20명 내외
- 지원 금액 : 300만 원 (분할 지급)
- 지원 기간 : 1년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본 회의 취지에 부합한 우수한 인재에 한하여, 지속 선발하여 지원 가능함
- 신청 자격(아래 가, 나, 다, 라 모두 충족되어야 함)

구분	신청 자격
가	대한민국 국적의 청년으로 (사)맑고 향기롭게 발원 취지에 공감하며,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지닌 2년제 이상 대학생
나	본인 또는 부모(보호자)가 사찰&불교 단체 소속 신도(회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가능자에(신도증, 추천서, 확인서 등)
다	법정 저소득층 및 소득 구간 5구간 이하
라	직전 학기 평균 학점 B학점 이상인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점 4.5 만점의 경우 총평점 3.5 이상</li> <li>• 학점 4.3 만점의 경우 총평점 3.3 이상</li> </ul>

- 서류 접수 : 2021년 4월 1일(목)부터 4월 16일(금) 우편 소인까지
- 선정 발표 : 2021년 5월 21일 개별 통지 및 학교로 연락
- 문의처 : 맑고 향기롭게 02)741-4696(총무팀)
- 구비 서류,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 공지 사항 참조 바람
- 장학금 후원 동참 계좌 : KEB하나은행 220-890015-10204 / 맑고 향기롭게

#### 제3세계 신생아 살리기 모자 전달

신생아 살리기 모자 뜨기 봉사 모임 '향기소리'는 지난 3월 10일에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이 진행하는 '신생아 살리기 모자 뜨기 캠페인' 시즌 14에 참여하여 모자 3,750개와 담요 75개를 전달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저체온으로 인해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는 제3세계 국가의 신생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진행하는 캠페인입니다. '향기소리' 봉사팀은 2013년부터 국제 구호 활동에 관심 있는 맑고 향기롭게 회원과 길상사 신도들이 함께 시작한 봉사 모임으로 8년간 13,984개의 모자와 105개의 담요를 세이브더칠드런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특히 캠페인 시즌 11과 12에 참가한 단체 중 최다의 모자를 기증했습니다.

#### 법정 스님 11주기 추모 법회 원만회향

법정 스님 기일(음력 1월 26일)을 맞아 3월 9일 길상사 설법전에서 11주기 추모 법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추모 법회는 명종 5타와 개회사, 삼귀의,

반야심경, 영단 삼배, 입정, 헌향, 헌다, 헌공, 헌화, 법정 스님 초상화 도자기 작품 헌정, 법정 스님 추모 영상, 송광사 주지 자공 스님의 추모사, 주지 덕일 스님 인사말, 길상사 합창단의 추모 헌음, 사홍서원 순서로 '코로나 19' 방역 지침에 따라 다소 간소하게 봉행되었습니다. 길상사 사중에서는 대중공양은 제공하지 않고 답례떡을 대신하였으며, 덕조 이사장 스님이 보시한 법정 스님 브로마이드형 사진을 참배객들에게 나눠 드렸습니다.

#### 향기 우체부(손편지 답장) 봉사자 모집

길상사 내 '법정 스님 진영각'을 찾아 툃마루에 잠시 머물며 마음을 차분히 달래거나 방명록을 남기는 분이 많습니다. 방명록에는 저마다 간직한 상처와 희망, 다시 힘을 얻고 싶다는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이 글들을 보며 힘겨워하는 누군가를 위해 살짝 위로의 말을 전한다면 힘을 낼 것 같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이메일과 각종 SNS가 보편화되면서 손편지가 사라지고, 우체통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정(情)도 점점 사라져 가는 언택트(untact) 시대에 조금은 아날로그 방식이지만 서로에게 소중하고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온(溫)택트 손편지 답장 봉사 활동에 참여할 '향기 우체부'를 모집합니다. 전문 상담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갖고 계신 회원님, 말 한마디의 힘을 알고 계시는 회원님, 손편지가 가진 진심을 믿어 주시는 회원님의 관심을 기다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 4월 중앙 모임 정기 활동 안내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자원 활동 : 5일(월) / 오전 10시 / 세계일화실
  - 필사모임(법정 스님 저서 읽기) : 매주 화요일 / 세계일화실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자원 활동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맑고 향기롭게 조리장
  -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모자 뜨기 모임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세계일화실
  - 생태 사찰 가꾸기 모임 : 매주 월, 목요일 / 길상사 경내
  - 정기 재정 후원 시각장애인 호송 단체 '부름의 전화' 정기 후원. 서울 지방 변호사협회 결연 청소년 지원.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 스님 학교 후원
- \* 코로나19로 인해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니 처음 봉사 활동에 참여하시거나 시고자 하는 분은 반드시 사무국에 문의 후 참여해 주세요.

### 대구 모임 소식 (053-753-8883)

- 봉사 활동 ● 홀로 어르신 밑반찬 정기 나눔 : 매주 수요일 / 음식 조리 활동(10시~13시), 배달 활동(19시~21시)
-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 요양 시설) 정기 방문 : 매월 셋째 화요일 /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 / 목욕, 식사 도움, 빨래 정리, 말벗
- 청도 운문사 정기 방문 : 매월 둘째 주 금요일 /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집결, 출발 / 공양 준비 및 공양 재료 다듬기, 청소 등

- 모임 ● 시민서로배움터 : 대구 모임 3층 비정기 강좌 개최
- 법정 스님 책 읽기 모임 :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저녁 7시
- 지원 사업 ● 햇살청소년 지원 사업(가정 폭력, 성폭력 피해 가정 정서 지원 프로그램)
-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 월간 소식지 발송 : 매월 초
- 정기 봉사 활동 및 사육 청소 봉사자 수시 모집

### 경남 모임 소식 (055-266-0170)

- 봉사 활동 ● 보현행원(무료 노인 요양원) :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 봉사 / 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 사파복지회관 무료 급식소 :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에 점심 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 / 오전 10시~오후 2시
- 해 뜨는 교실(봉림청소년문화의집) : 저소득층 초중등학생 공부방에 학습 지도 및 간식 지원
- 천연 화장품 만들기 모임 : 매월 첫째, 둘째 금요일 진행 / 오후 1시 30분
- 친환경 수세미 나누기 : 매월 둘째 화요일 모임 및 친환경 수세미 판매
- 모임 ● 선 수련 모임 : 매주 금요일 / 저녁 7시 / 열린 법당 '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 : 매월 넷째 수요일 / 오전 11시

- 후원 활동 ● 결연 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밑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 / 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 결연 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 월간 소식지 발송 : 매월 초
- 정기 봉사 활동 및 사육 청소 봉사자 수시 모집

### 광주 모임 소식 (062-236-3129)

- 봉사 활동 ● 점심 공양 나눔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 고령자, 저소득,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천 원의 밥상(점심) 운영 / 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 김치 담그기 : 매주 토요일 진행
- 자비의도시락 나눔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 저소득 가정에 도시락 나눔
- 장터 및 바자회, 쓰레기 줍기 캠페인 : 비정기적으로 회원 및 봉사자들 참여 진행
- 모임 ● 독서 모임 : 법정 스님 저서 읽고 회원들과 함께 교류
- 노래 모임 : 건전가요, 명곡 노래 교실
- 천연 화장품 만들기 : 천연 세숫비누, 빨래비누, 천연 화장품 만들기
- 후원 활동 ● 장학 사업 :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 학비 지원
-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 월간 소식지 발송 : 매월 초
- 정기 후원자 및 자원 활동가 수시 모집

## 9. 가난한 절

**길상사 소식 (02)3672-5945/전송:(02)3672-5947**

**천수다라니 33독 기도** 일시: 4월 3일(토) 오후 6시~8시30분 / 장소: 극락전 / 한 가지 소원의 성취를 일념으로 발원하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하면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으로 원하는 바가 속속성취되는 영험한 기도가 천수다라니 기도입니다. / 개인 축원입니다. 공양물(떡, 꽃, 쌀 등) 설판 받습니다.

**관음재일** 일시: 4월 5일(월) / 오전 9시 50분 / 장소: 극락전 / 매달 관음재일에는 인등 접수자 축원이 있습니다.

**초하루기도 및 법회** 일시: 4월 12일(월) / 오전 9시 50분 / 장소: 극락전

**보름기도** 일시: 4월 26일(월) / 오전 9시 50분 / 장소: 극락전

**지장재일** 일시: 4월 29일(목) / 오전 9시 50분 / 장소: 지장전

**부처님오신날 연등 공양** 불기 2565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에서는 연등 공양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중생을 모두 깨달음에 이르게 하겠노라는 서원과 함께 속세로 오신 부처님처럼 나의 마음과 내 가족의 행복은 물론이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훼손되고 오염되어 죽어 가는 못 생명들을 위하여 연등을 환히 밝혀 주세요.

극락전(법당) 연등		도량(마당) 연등	
가족등	10만원	가족등	3만원
영가등	10만원	영가등	3만원

### 4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기도

기도명 / 법회	날짜	시간	장소
다라니기도	4월 3일	오후 6시~8시 30분	극락전
관음재일	4월 5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초하루기도	4월 12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보름기도	4월 26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지장재일	4월 29일	오전 9시 50분	지장전
극락전 기도	매일	새벽 4시 / 오전 9시 50분 / 오후 7시	극락전
지장전 기도	매일	새벽 4시 40분 / 오전 9시 50분 / 오후 7시	지장전

\* 일요 가족 법회, 청년회 법회, 중·고등 법회, 어린이 법회, 새신도 교육 일정은 코로나19로 인해 변동될 수 있으므로 길상사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 (사)맑고 향기롭게 후원 안내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 모임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본 모임 홈페이지에서 후원 회원 가입 후 CMS 후원을 신청하거나,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하여 서면 작성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 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에는 신청한 은행에 직접 가야 합니다.

**지로 후원**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소식지와 함께 배송되는 지로 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후원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 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지로 번호 7618372)

**일시 후원** 자신의 뜻깊은 일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인 후원이 부담되는 경우, 본 모임 회원은 아니지만, 활동에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다달이 소식을 받아 보는 우편비로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에 직접 본 모임 후원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 정기 후원 · 회원 가입

(사)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후원 회원 등록하거나 (사)맑고 향기롭게 사무국에 방문하여 가입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온라인 자동이체 후원 계좌

#### 중앙 모임 02-741-4696

일반 사업 후원 계좌: 국민 817-01-0253-129

KEB하나 201-890400-87705

농협 029-01-199412

결식 이웃 후원 계좌: 국민 817-01-0255-458

신한 100-013-787953

장학금 후원 계좌: KEB하나 220-890015-10204

**대구 모임 053-753-8883** 후원 계좌: 대구 002-05-016277-8

**경남 모임 055-266-0170** 후원 계좌: 농협 932-01-002933

**광주 모임 062-236-3129** 후원 계좌: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는 종교 법인으로 인가되어 후원하신 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